



# 다른 사람들을 돌보자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창세 16,13 참조)



이달 생활말씀은 이집트 여인인 하가르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요. 그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느님이 그의 고통을 보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음을 느낀 경험담이에요.



우리도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돌보아주셔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미카엘은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하던 중에 주일 미사에 갔어요. 선교사 신부님은 세계 여러 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봉헌 때 아빠가 돈을 준비하는 동안 미카엘은 자신이 절약한 돈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이 기억이 나서, 아빠에게 자기도 봉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미카엘을 바라보시며, 얼마를 하고 싶은지 물으셨어요. 미카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답했어요.